

# 해방 이후 제주사회 연구의 성과와 과제

강세현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해방 이후 발표된 제주사회에 대한 연구 성과물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성과물은 제주사회를 주제로 하여 사회학 또는 인류학 전공자가 연구하여 발표한 저서, 논문, 연구보고서 등이다. 여기서 사회학 또는 인류학 전공자란 해당 전공분야에서 일정의 학문적 훈련과정을 거쳐 학문적 시각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문공동체 속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신행철, 2004: 501).

사실, 신행철은 해방 이후 제주사회에 대한 연구 성과를 분석한 논문들을 집필하여 최종적으로는 그의 책, 『제주사회와 제주인』(2004)에 3개의 장으로 나누어 실고 있다.

그 3개의 장의 제목은 '제21장 해방후 제주연구개관-사회학·인류학 분야-', '제22장 제주사회 연구의 개관', '제23장 제주사회의 사회과학분야 학술활동과 연구인력-해방~1991년-'이다.

이 글에서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의 연구 성과에 대한 소개는 거의 전적으로 앞의 신행철의 글들을 요약 및 보완하면서 인용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연구 성과는 주로 제주사회 관련 저서와 『제주도 연구』, 『탐라문화』, 『제주발전연구』 등의 학술지에 발표된 글들을 분석하였다.

## II. 제주사회 연구의 전개

### 1. 해방 이후~1970년대

해방 이후 사회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최초의 제주사회 연구는 1959년 제주도종합학술조사단에 속한 사회반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제주도종합학술조사단은 1959년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22일간에 걸쳐 해방 이후 최초로 전국학계를 거의 총망라한 대규모의 '제주도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는 인문·사회·자연과학 15개 학문분야의 국내 저명 학자들과 운행본부 요원으로 구성된 71명의 조사단원 및 보조 조사원 24명을 포함한 95명이 참가하였다. 한국지역사회학술조사기구 주최로 계획되고 시행된 제주도종합학술조사는 아세아재단이 재정적 지원을 하고, 문교부·내무부·교통부·보건사회부·공보실·제주도청·해군본부·한국일보사가 후원하였다.

이 때는 제주도에 대한 지역사회개발 문제가 여러 측면에서 한창 대두되고 있던 시기로, 제주도종합학술 조사는 제주도의 지정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과 각종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계와 언론을 비롯한 사회 각층의 관심 사항이었다(한상복, 1984: 293-294).

제주도종합학술조사단의 사회반에는 당시 서울대 문리대 조교수로 있던 이만갑, 서울대 문리대 조교로 있던 정홍진, 김경동이 참여하였다. 사회반은 제주도의 특수지역사회의 성격에 입각한 사회구성의 제 요소를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51개 문항으로 구성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연구에 임했다. 당시 애월면 금성리에 대한 사회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조사표는 조사지역의 가족·친족·혼인에 관한 양적 자료뿐만 아니라 농업과 어업, 지주소작관계, 수입·지출·생활수준·시장행위, 기타 여러 가지 생활면의 가치와 태도에 관한 양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자료의 일부는 나중에 그 당시 서울대 문리대 사회학과 3학년으로 사회반 조사보조원으로 참가하였던 신행철이 대학졸업논문을 쓰는 데 이용되었다(한상복, 1984:298-315). 그리고 나머지 일부 자료는 조사표 그대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의 한상복 교수가 보관해 오다가, 1999년 출판된 전경수·한상복의 『제주 농어촌의 지역개발』(1999)이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활용되었다(신행철, 2004: 503).

1960년대 들어 눈여겨 볼만한 연구는 일본인 사회학자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의 저서, 『濟州島』이다. 1966년 동경대학출판회에서 발간한 이 책은 제주사회에 대한 사회·인류학적 연구의 최초의 저서로 꼽을 수 있다(신행철, 2004: 504). 이 저서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부 제주도민족지

- 제1장 자연환경
- 제2장 촌락의 연구
- 제3장 가족의 연구
- 제4장 초가족집단의 연구
- 제5장 제주도의 종교
- 제6장 제주도민구의 해설

## 제2부 동경에 있어서의 제주도인

- 1. 머리말
- 2. 동경 X지구에 있어서의 제주도의 이주 경과
- 3. X지구에 있어서의 제주도인의 분포·사회결합
- 4. 가족의 구조
- 5. 성씨와 이름
- 6. 남녀의 생활
- 7. 소비생활
- 8. 성격

## 제3부 제주도에 있어서의 30년

- 1. 머리말
- 2. 경제의 변동
- 3. 가족과 친족의 변동
- 4. 에필로그

‘제1부 제주도민족지’는 1936년과 1937년 두 해 동안 제주도 현지조사에 기반을 둔 연구 결과로서 1938년 경성대학 학사논문인 「제주도: 그 사회인류학적 연구」와 「제주도와 떨어진 반도의 지리와 풍속」(『족과

전설』 11~12, 1938)을 개정한 것이다. '제2부 동경에 있어서의 제주도인'은 1950년 5월부터 9월 중순 사이에 73가구를 조사한 결과로서 1951년 『일본민족학연구』에 이즈미 세이이치 외 4인의 명의로 발표한 것이다. '제3부 제주도에 있어서의 30년'은 이 책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내용인데, 저자가 1965년 10월 단체 관광단의 일원으로 내한하여 주로 화북리와 대흘리를 조사한 것이다(신행철, 2004: 505).

1960년대 한국인의 제주 농촌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는 노창섭·강우철·김종서의 「제주도 개발농촌지역의 연구-신효리 부락의 사회, 경제 및 교육적 분석과 평가-」(1966)가 있는데, 이는 개발 과정에 있는 농촌의 시범마을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례연구이다. 그 연구자들 중 노창섭은 사회학자였다는 점과 따라서 그 연구방법과 서술이 사회학적이란 측면에서 이 연구는 종래의 여러 연구와는 달리 제주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신행철, 2004: 526).

1970년대 들어, 최재석은 1975년부터 제주도 동부 한 마을의 친족조직을 방학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현지조사를 행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를 해마다 학술지에 발표하였고, 1978년까지 발표한 11개의 논문과 1979년 장례와 친족조직에 대해 새롭게 쓴 논문을 더하여 총 12개의 논문으로 구성된 저서, 『제주도의 친족조직』을 1979년에 발행하였는데(최재석, 1979), 이는 한국 사회학자가 쓴 제주사회 연구의 최초 저서로 볼 수 있다(신행철, 2004: 507).

최재석은 『제주도의 친족조직』 '머리말'에서 제주도의 가족 내지 친족조직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1965년 9월 초 동경에서 개최된 제9차 국제가족연구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다. 그 때 최재석은 한·중·일 세 나라의 전통적 가족을 비교연구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토론자로 참석한 이만갑은 제주도의 가족은 부권이 아니라 모권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한국가족의 부권설을 반박하였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최재석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때까지 계속 연구하여 왔던 육지의 가족연구가 일단락되면 제주도의 가족 내지 친족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제주도를 직접 조사연구하게 한 두 번째 이유는 1966년 일인학자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가 쓴 『濟州島』라는 책자의 발간이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나오는 제주도의 가족은 현저하게 모계적 존재라든가 제주도의 남편은 게으르고 처에 예속적이라든가 그러면서도 결혼 초야에 신부가 신랑의 옷을 벗겨주는 것을 일 반화함과 동시에 이것에 기이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한 20년 가까이 계속 가족 연구에 종사하여 그 결과 육지 가족 성격의 윤곽이 잡히자 육지가 아닌 지역의 가족과 시대적으로 올라가서 과거의 한국 가족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는 지적 욕구가 확대되었는데, 육지 농촌이 아닌 지역으로 택하게 된 곳이 제주도였다고 적고 있다(최재석, 1979: 1-2).

1977년 12월 31일에는 제주대학교에 지역개발학부 지역사회개발전공이 신설되고, 이듬해 3월 1일 신입생 30명이 입학한다. 1978년 10월 7일에는 지역개발학부 지역사회개발학과(사회전공)로 개편되고, 1980년 10월 2일에는 지역개발학부 사회학과로, 1982년 3월 1일에는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로 개편된다(제주대학교 사회학과, 1982). 이에 따라 1978년부터는 제주대학교에 점차로 사회학 또는 인류학 전공자들이 부임하여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전개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제주사회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사회학 전공 교원으로는 맨 처음 제주대학교에 부임한 박재환은 성곡학술문화재단의 연구보조비에 의한 연구, 「인간상호작용에 관한 제주도민의 사회의식: 민속자료를 중심으로」(1977)를 발표하였다.

한편 조혜정은 1979년 「An Ethnographic Study of a Female Diver's Village in Korea」라는 논문으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해 Korea Journal에 「Neither Dominance: A Study of a Female Diver's Village in Korea」를 발표했다. 조혜정의 논문은 제주도의 해촌 마을(우도)을 연구대상으로 해서 쓴 최초의 인류학 논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신행철, 2004: 527).

조사보고서류의 종합연구물 속에서도 사회·인류학적 글들이 실리고 있다. 문화공보부에서 1977년 펴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에는 제1편으로 「사회」(이광규 집필)가 있고, 제주도의 지원으로 제주대학교 통일안보연구소에서 연구한 『제주도민의 의식구조 조사연구』(1978)에는 제2장 「사회·문화에 관한 의식」 부분이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 민속박물관에서 낸 『해촌생활 조사보고서』(1978)는 용수리와 오조리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그 내용 중에는 사회배경이나 해녀, 가족구조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신행철, 2004: 509).

## 2. 1980년대~1990년대

1980년대의 제주사회 연구는 우선 제주도의 가족·친족에 관련한 학문적 논쟁에서부터 그 막을 올리게 된다.<sup>1)</sup> 그 논쟁의 내력은 이렇다.

1979년 10월 30일 제주대학교에 부임한 사회인류학자 김한구는 그 다음 해에 최재석의 저서, 『제주도의 친족조직』을 비판하는 서평 논문 「최재석 저, 『제주도의 친족조직』」(1980)을 발표하였고, 이어 최재석은 김한구의 논평을 반박하는 「사회과학의 기초소양: 『제주도의 친족조직』에 대한 김한구씨의 서평의 경우」를 발표하였는데, 김한구는 다시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인류학적 고찰」(1981)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제의 마을 남제주군 성산면 S리의 마을구조와 가족제도 등을 다루면서 최재석의 입장을 논박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비판 부재의 학문 풍토에 자극제가 되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는 감정적인 갈등이 보이는 듯하였다. 당사자들 이외에도 이 논쟁에 관련하여 언급한 사람들로는 전경수와 이광규가 있다. 전경수는 『진단학보』 55호(1983)에 최재석의 『제주도의 친족조직』에 대한 서평을 실었고, 최재석의 저서에 대해 이론 및 방법론, 자료, 기술상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같은 해(1983) 이광규는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2회 탐라문화학술회의에서 「사회학적 측면」을 발표하였고, 발표 논문은 『탐라문화』 제3호에 실렸다(이광규, 1984). 이 논문에서 이광규는 최재석과 김한구의 논쟁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한편 1980년 10월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했다가 1983년 9월에 영남대학교로 자리를 옮긴 이창기는 「제주도의 가족관계」(1983)와 「제주도 가구의 크기」(1987)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1980년대의 연구들 중 마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다른 주제 영역에 비해 그 양이 많고 그 주제도 다양하다. 신행철은 마을의 정치체계(권력구조)에 관련하여 1981년 「한국 농촌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제주도의 행정단위 마을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후 계속 세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들 논문을 바탕으로 1987년 박사학위논문 「제주 농촌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를 썼고, 1989년에는 『제주 농촌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라는 저서로 발행되었다. 신행철은 그 책의 '머리말'에서 한국 농촌사회에 대한 관심 속에서 지역사회의 권력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한국 사회학의 한 연구 영역을 이어보고자 했음을 피력하고 있다(신행철, 1989: 1).

조혜정은 해촌 마을 관련 논문으로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성별 분업에 근거한 남녀평등에 관하여」(1982), 「근대화에 따른 성역할의 변화-제주도 해녀 마을을 중심으로-」(1987)를 발표했다.

사회조직에 관련해서는 김석준의 「제주도 중산간 부락민의 계집단 참여와 사회적 유대」(1985, 1986)가 발표되었다. 지역 개발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는 신행철·김태보의 「새마을운동과 지역개발」(1980), 신행철의 「농촌개발 엘리트」(1983)가 있다.

제주도 문화에 대해서는 주로 인류학적 접근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데, 김한구의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

1) 1980년대의 제주사회 연구는 신행철의 『제주사회와 제주인』(2004: 529-532)을 요약 및 보완하여 인용한 것이다.

인류학적 고찰』(1981)과 유철인의 「일상생활과 도서성: 제주도 문화에 대한 인지인류학적 접근」(1984)와 두 편, 이기옥의 「도서와 도서민: 마라도」(1984)가 있다. 의식에 관한 글로는 신행철의 「제주도민의 사회·문화 의식상의 전통성」(1980)과 신행철·김진영의 『제주인의 의식구조』(1985)가 있다.

1980년대의 연구경향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종래 도외시 되었던 사회학적 주제들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도시, 사회심리, 사회사, 사회변동, 관광, 인구를 주제로 하는 글들이 그것이다.

우선 도시 영역에서 보면 정대연의 「제주시의 생태학적 구조 분석」(1984), 제주시의 생태구조(II): 호주 Brisbane시와의 비교분석』(1988)이 있고, 조성윤의 「제주도 도시개발의 기본구조」(1986)를 꼽을 수 있다. 사회심리학적 주제의 글로는 정대연의 「준거집단과의 사회적 비교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983)가 있다. 사회사 영역에서는 조성윤이 1986년에 발표한 두 편의 글, 「1898년 제주도 민란의 구조와 성격」, 「남학당의 활동과 방성칠난」과 「조선시대 제주도 신분구조 연구 시론」(1989)이 있고, 사회변동을 다룬 글은 이상철의 「제주사회 변동 서설: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1987)가 있다.

관광에 관련한 글로는 전경수의 「제주도의 관광개발과 지역문화 보전을 위한 제언: 관광인류학적 입장」(1985)과 신행철의 「The Socio-Cultural Impacts of the Tourism Development in Cheju Island」(1987)가 있는데, 전자는 제주도연구회 제1차 학술회의에서, 후자는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 주최의 학술회의에서 각각 발표된 것이다.

제주도 인구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이창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창기는 1982년에 「제주도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과 「제주도의 인구성장」, 두 편의 글을 발표한 바 있고, 1985년 「제주도의 인구이동: 1965~1980」을 제주도연구회 제1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해외 제주도민에 관한 글로는 신행철의 「재일 제주동포: 그 소수집단으로서의 성격과 계층구조」(1982), 이문웅의 「재일 제주인의 의례생활과 사회조직」(1988), 「재일 제주인 사회에서의 무속」(1989)이 있다. 이 밖에 인류학자들에 의한 연구로 전경수의 「상고 탐라사회의 기본구조와 운동방향」(1987), 한상복의 「제주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연구」(1988), 이기옥의 「제주도 사신송배의 생태학」(1989)이 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제주사회를 주제로 한 저서와 단행본들이 속속 발행된다. 신행철 외의 『제주사회론』(1995), 김창민의 『환금작물과 제주농민문화』(1995), 신행철 외의 『제주사회론2』(1998), 이창기의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1999), 전경수·한상복의 『제주 농어촌의 지역개발』(1999)이 그것이다. 이 외에 단행본 형태의 연구보고서 및 총서류로 김석준·강세현의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제주지역을 대상으로-』(1996), 『제주의 민속 V: 민간신앙·사회구조』(1998)가 있다.

『제주사회론』(1995)은 공동 저자들이 제주 지역사회에 관한 연구의 방향을 점검해 보고 활성화시키려는 뜻에서 그동안 제주사회에 관해 각자 시도했던 사회학적 연구들을 한자리에 모아 보려는 시도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제주사회의 인구, 가족, 농촌, 도시, 계급, 권력, 산업, 노동, 문화, 사회운동 등의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필자들은 신행철, 이창기, 조성윤, 김석준, 정대연, 이상철, 김진영, 유철인이고, 이 가운데 영남대학교 이창기 교수를 빼고는 모두 당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에 적을 두고 있었다(신행철 외, 1995: 4).

『제주사회론』(1995)의 공동 저자들은 3년 후인 1998년에 사회학과 교수들과 외부 교수 및 강사들과 함께 제주사회는 한국사회의 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를 지닌 단위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발표한 글들을 모아서 두 번째 저서, 『제주사회론2』를 발행한다(신행철 외, 1998: 3). 『제주사회론2』의 집필에 참여한 공동 저자들은 신행철, 정대연, 김석준, 유철인, 이상철, 조성윤, 김진영(이상은 당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창기(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혜숙(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권귀숙(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강세현(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이다. 『제주사회론2』는 '제1부 제주연구와 제주도민' 4개의 장, '제2부 제주 사회변동과 주민의 삶' 5개의 장, '제3부 문화' 5개의 장, '제4부

가족' 3개의 장, 총 1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창민의 『환금작물과 제주농민문화』(1995)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함께 농산물 수입 개방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존립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환금작물경제에 대한 제주 농민의 인식과 대응이라는 주제를 문화를 통해 분석한 것이다(김창민, 1995: 4).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1999)을 집필한 이창기는 최재석의 제주도 가족 연구에 현지 조사원으로 참여하여 제주문화에 접하고,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에 3년간 근무한 적이 있다. 이 책은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발표했던 12편의 논문을 묶은 것으로서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인구성장」, 「성별·연령별 인구구성」, 「인구이동」 등 인구분석에 대한 내용이다. 제2부는 국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크기와 가구의 구성형태를 분석한 세 편의 논문을 두 개의 장으로 꾸민 것이다. 제3부는 「제사분할」, 「19C말 제주도의 가족과 혼인」, 「제주도 가족제도의 형성 배경」,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징」 등 가족제도에 관련된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창기, 1999: 8). 전경수·한상복의 『제주 농어촌의 지역개발』(1999)은 제주도 지역내에 투입된 지역개발 사업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지역개발사업을 분석한 것이다. 아울러 산북촌과 산남촌의 현황을 정리하고 지역개발의 통합모형과 주민참여를 수록하고 있다. 제주문화자료 총서 5권으로 발행된 『제주의 민속 V: 민간신앙·사회구조』(1998)에는 신행철과 강세현이 '사회구조편 제1장 마을'을, 이창기는 '제2장 가족과 친족'을, 김석준은 '제3장 경제생활'을 집필하였다(제주도지편찬위원회 편, 1998). 김석준·강세현의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제주지역을 대상으로-』는 1995년 5월 제주대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회조사 실습으로 '놀이 유형과 문화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그 조사결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이다(김석준·김준표, 2016: 5).

다음으로 1990년대에 발표된 사회학적 연구 논문들을 세부 주제별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나 서술의 편의 상 몇 가지 주제별로 묶어서 소개하면 이렇다. 일탈 사회학 분야와 관련하여 강세현은 「낙인과 친구관계: 제주 지역 비행문화의 한 특성」(1994), 「제주지역 청소년 비행 및 낙인문제와 복지적 대책」(1995), 「제주 관광 산업의 성장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1997)을 발표하였다. 또한 김석준과 강세현은 공동으로 「합법적 도박의 사회적 영향: 제주지역 복권 구입자를 대상으로」(1996), 「제주지역의 도박 실태와 도박 참여자의 사회적 성격: 문제와 대안」(1996)을 발표하였고, 김진영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 분석을 위한 경험적 연구」(1997)를, 김석준은 「강원도 폐광지역과 제주도의 개발전략간 상호영향: 내국인 출입카지노 개설 문제를 중심으로」(1998)를 발표하였다.

지역 개발 관련 논문으로는 이상철의 「제주도 개발 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1995), 「제주도의 개발과 사회문화 변동」(1997), 장원석·정대연·김석준의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활용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색: 제주지역을 대상으로」(1997), 조성윤·문형만의 「관광개발과 지역주민운동: 제주 종합사격장 건설반대운동의 사례분석」(1998)을 꼽을 수 있다. 마을 관련해서는 이창기의 「19C 말 제주도 농촌마을의 혼인양상: 1897년 덕수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1997), 현해경의 「제주 농촌마을의 기제사의례 변화」(1999)가 있고, 사회사 성격의 논문으로는 조성윤의 「19세기 제주도의 국가 의례」(1996)와 조성윤·박찬식의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1998)이 발표되었다.

이 밖에 기타 영역의 사회학적 연구들로는 이창기의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환경: 도전·적응·초월의 메카니즘」(1992), 신행철 외의 「제주도의 국제화·세계화에 대한 기초연구: 일본 북해도 및 중국 해남도와의 비교분석」(1995), 신행철의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1997), 서경림·김석준·김상찬의 「제주도민의 법의식에 관한 연구」(1999), 김석준의 「제주지역의 선거(1948~1992): 개괄적 검토와 재해석」(1997), 강세현의 「제주도민의 복지욕구와 사회문제 인식」(1999)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발표된 인류학적 연구들로는 유철인의 「제주사람들의 사회와 섬에 대한 관념: 인구 이동과 제주사회」(1992), 「Tradition and Cultural Identity in Cheju Island, Korea」(1991), 전경수의 「올나

신화와 탐라국의 산고」(1992), 「을나신화의 문화전통과 탈전통」(1994), 「용수문화, 공공재, 그리고 지하수: 제주도 지하수 개발의 반생태성을 중심으로」(1995), 김창민의 「환금작물 경제에 대한 일상적 형태의 농민 저항: 제주도의 낙동배기」(1993), 이기욱의 「환경과 제주문화-제주문화의 생태인류학적 연구 서설」(1993), 「제주도 농민경제에 대한 인류학적 전망」(1995), 전경수·한상복의 「제주도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한 조사 연구」(1996) 등이 있다.

### 3. 2000년대 이후

2000년대에 발행된 저서로는 신행철의 『제주사회와 제주인』(2004), 김진영의 『제주사회와 복지』(2006), 강세현의 『지역사회복지실천현장의 이론과 사례』(2014), 김석준·김준표의 『도박사회학: 제주지역 도박 산업화 과정과 성격』(2016)을 꼽을 수 있다.

신행철의 『제주사회와 제주인』(2004)은 저자가 1978년 제주대학에 부임한 이래 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쓴 글들 중 이 책의 구성에 맞는 것들을 골라 모아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1959년 7월, '제주도종합학술조사단'의 보조학생으로 참여하고 그 당시 조사자료를 가지고 학사학위논문을 쓰게 된 것이 제주사회에 대해 학술적 관심을 가지게 된 최초의 계기가 되었고, 제주대학에 부임한 이후에는 줄곧 제주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다고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제목을 보면 '제1부 제주사회의 성격과 그 변화: 탐색적 논의', '제2부 제주인의 의식세계', '제3부 제주의 농촌마을', '제4부 제주 농촌마을의 권력구조(리더십 구조)', '제5부 일본 속의 제주인', '제6부 제주사회 연구 개관: 1990년대 초까지' 이다(신행철, 2004).

김진영의 『제주사회와 복지』(2006)는 저자가 발표한 논문과 보고서 중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 중 일부를 골라 편집한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에 이르기까지 쓰여진 것이다. 이 책은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부 제주사회와 복지'는 제1장 「제주 사회복지제도와 행정의 변화」(1996), 제2장 「제주지역 여성농민과 복지」(2001), 제3장 「고령화사회 제주노인의 특성과 복지정책 방향」(2004), 제4장 「가정의례 의식과 개선 운동」(1995) 등의 글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2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한 사회복지분야 발전계획 사례를 담고 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 제주도) 중 사회개발부문 사회복지분야 계획, 『21세기 남제주군발전계획』(2001, 남제주군) 중 사회복지분야 계획, 『장수형 노인복지 기본계획』(2003, 제주발전연구원 장수문화센터) 등이 그것이다. 이들 계획들은 해당 자치단체와 제주발전연구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작성한 것인데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여건을 점검한 후 사회복지발전 과제와 그 시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김진영, 2006: 2-3).

강세현의 『지역사회복지실천현장의 이론과 사례』(2014)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대해 이론적 및 법률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제주지역의 사회복지실천현장과 사례를 다루고 있다(강세현, 2014: 3). 이 책은 2014년 출간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2017년 제2판으로 발행되었는데, 이 책에서 살펴보는 서비스 분야는 지역주민·저소득층 복지실천현장, 아동복지실천현장, 청소년복지실천현장, 노인복지실천현장, 장애인복지실천현장, 여성·가족복지실천현장, 정신건강복지실천현장이고, 간접적 사회복지실천현장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2017: 4).

김석준·김준표의 『도박사회학: 제주지역 도박 산업화 과정과 성격』(2016)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의 목차와 구성을 보면 도박판에서 쓰는 한 판, 두 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판 짜기는 '도박사회의 밑그림'을 그려본 이 책의 서론으로서 도박사회의 개념, 자본주의 사회와 도박의 산업화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어서 한 판, 두 판, 세 판으로 이어지는 도박의 정치경제학, 지역사회의 합법적

도박 산업 확장과 카지노 도입 전략, 제주사회 카지노 담론의 헤게모니 정치가 책의 본론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덧붙인 한 판 더 '도박사회의 사회적 합의?'에는 결론에 해당하는 「도박판의 불평등과 도박사회의 민주주의」를 다루었고, 보론으로 「제주지역의 도박합법화와 사회적 합의의 과제」를 첨가하고 있다(김석준·김준표, 2016: 7-8).

이 밖에 총서류로 발행된 『제주도지 제5권: 사회·교육·여성』(2006)에는 '제1장 사회'에서 신행철은 '제1절 제주사회·제주인'을, 유철인은 '제3절 마을'을, 황석규는 '제4절 도시 형성 전개'를, 김진영은 '제5절 사회조직 및 단체'를, 이상철은 '노동조합·노동운동'을, 조성운은 '사회운동'을, 그리고 강세현·남진열은 '제3장 사회복지'를 집필하였다(제주도지편찬위원회 편, 2006).

다음으로는 단행본 형태로 발행된 연구보고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제주사회 관련 연구보고서들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들 중에는 제주발전연구원(1997년부터는 제주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1997년 5월 설립된 제주발전연구원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제주사회에 관련된 연구들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연구 성과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구 주제별로 살펴보면 노인 관련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승한·홍연숙의 『제주지역의 노인복지욕구 수요조사』(2005), 고승한·고보선의 『제주장수마을의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2005), 고승한·김성봉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제주노인교육의 방향과 과제』(2007), 고승한·김진영의 『제주장수노인의 사회적 부양체계와 복지대책 방안』(2008), 고승한·박상철·문순덕의 『장수이미지 브랜드 구축을 위한 장수인 분포 조사』(2009), 고승한·현인숙의 『제주지역의 백세인 생활실태 조사』(2011)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이루어졌고, 그밖의 기관에서 행한 연구로는 이광래·강세현·유용식·남진열의 『제주도 경로당 실태와 운영활성화 방안』(2005, 제주관광대학 부설 제주노인연구소), 고성돈·진관훈·김민철·김태일·강세현·문성종·양충현의 『제주형 고령친화산업 기반구축 방안』(2009,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등이 있다.

사회복지 관련 보고서로는 신행철·강세현·남진열의 『제주도 사회복지시책 만족도 및 욕구조사』(2004,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성준·강세현·남진열·황경수의 『제주도민 자원봉사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식조사』(2006,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 고승한·남진열의 『자활사업 참여자의 생활실태와 의식변화 연구』(2012, 제주발전연구원), 심경수·고승한·오윤정·박정훈·황경수·유용식·강세현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마을만들기 사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2017, 제주연구원)가 있다.

문화 관련 보고서로는 문순덕·강세현의 『제주 문화지표 개발과 활용방안』(2012,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내 지역간 문화격차 의식과 해소방안 연구』(2015, 제주발전연구원), 문순덕·고승한·강세현의 『제주문화지표조사』(2017, 제주연구원)가 있다. 그밖의 보고서로 고승한·김진영·남진열·강창민의 『제주지역 균형발전의 정책방향과 과제』(2006, 제주발전연구원)가 있다.

2000년대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복지 분야에는 강세현의 「제주의 사회복지, 그 실태와 문제점」(2000),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정책 진단과 발전방안」(2012), 「제주시 청소년정책의 핵심사업 분석: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중심으로」(2015), 「제주지역의 청소년복지실천현장에 대한 연구」(2016), 「제주지역의 사회복지관 사업 실태 분석」(2016), 「제주지역 베이비붐세대의 자원봉사 활성화 방향 고찰」(2016), 김진영의 「제주지역 여성농민과 복지」(2001), 황석규의 「환경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2005)가 발표되었다.

노인 관련 논문으로는 강세현의 「제주지역 노인의 사회관계와 자긍심」(2002), 김진영의 「제주 장수 노인 인구 현황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2003), 김진영·홍연숙·송효정의 「장수형 노인복지 통합모형」(2003), 김진영·김남진의 「제주지역 노인의 여가활동 조사연구-여가활동 유형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2009), 전경수의

「제주도 장수자의 노동경험과 노동윤리」(2003), 고승한의 「제주장수사회의 도래: 진단과 향후 과제」(2008), 정광중·황석규·강준혁의 「제주지역 노인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2010), 고승한·김진영의 「제주장수노인의 사회적 부양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2010) 등이 있다.

사회사 관련 논문으로는 조성윤의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2002),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2004),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2005), 「알프르 비행장: 일본 해군의 제주도 항공기지 건설 과정」(2012), 김창민의 「법정사 항일운동 가담자와 운동의 성격」(2002), 「법정사 항일운동과 지역주민의 참여」(2004), 권기숙의 「4·3의 대항거역과 영상」(2003), 「제주4·3의 진상규명과 젠더 연구」(2014) 등이 있다.

노동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는 이상철의 「제주도 관광호텔 종사자의 노동실태와 의식구조」(2001), 「제주지역 노사관계의 특성: 노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2005), 염미경의 「제주지역 노사관계의 현황과 특성」(2014)이 있다. 일탈 관련 논문으로는 김석준·황석규의 「지역개발전략으로서의 합법적 도박의 도입 영향에 관한 예비적 검토: 제주도의 사례」(2006), 황석규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분석 연구-서귀포시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2006), 김준표·김석준의 「제주지역의 도박 합법화와 사회적 합의의 관계: 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의 변화 문제를 중심으로」(2015)가 발표되었다.

이주민 및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염미경의 「개발과 이주 그리고 주거지 분화」(2011),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양상」(2011), 「산업화시기 제주 이주자들의 정착과정과 그 특성: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 사례를 중심으로」(2015), 「산업화시기 제주 이주민의 지역정착과 사회연결망」(2018), 황석규의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정책의 과제와 미래」(2009)라는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종교 관련 논문으로는 현혜경의 「의례 공연, 그리고 연대의 문제: 50주년 기념 4·3 도민해원상생굿을 중심으로」(2000), 「섬과 종교: 마라도의 상징성과 종교」(2004), 조성윤·현혜경의 「제주지역 민간신앙과 점복」(2001), 조성윤의 「제주도에 들어온 일본 종교와 재일교포의 역할」(2005) 등이 발표되었다.

제주사회의 갈등 문제를 다루는 논문으로는 고승한의 「제주지역의 사회갈등 양상과 갈등관리 방안 연구」(2006), 신행철의 「제주사회의 갈등과 도민통합: 미래 제주를 위한 제언」(2014), 김진영의 「제주사회의 갈등해소와 사회통합 방안-사회협약위원회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중심으로-」(2015)가 있다. 또한 2000년대 제주사회의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쟁점 중의 하나인 해군기지 문제를 다룬 논문, 전경수의 「문화주권의 '제주해녀'와 해군기지」(2012), 조성윤의 「제주도의 평화 정책과 해군기지 문제」(2011)가 눈에 띈다.

조성윤은 태평양 지역과 해양문화 관련 주제의 논문, 「제국 일본의 남양군도 지배화 연구동향」(2010), 「이어도에 관한 제주도 주민들의 이미지」(2011), 「제주도 해양문화 전통의 단절과 계승」(2013), 「미크로네시아 지역의 제주인 연구 서설」(2015) 등을 발표하였고, 현혜경은 로컬푸드를 주제로 하여 「제주지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전망」(2009), 「제주지역 생협조합원들의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인식과 실천」(2010), 「제주지역 '우영'의 전통과 현재적 지평에 대한 연구」(2011)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밖에 제주사회의 기타 영역의 주제를 다룬 논문들을 살펴보면, 양도형·양승식·최광식·조성윤·제종길의 「제주도 종달리 체험어장의 환경적 특성과 발전 방향」(2000), 고승한의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2005), 「제주지역 직업훈련 활성화를 통한 인력자원개발 발전 방향」(2007), 이상철의 「20세기 제주도의 사회변동과 발전」(2000), 김태윤·김진영의 「집단 효능감과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2012), 이상철·김석준·김준표의 「제주도민의 문화생활과 문화의식 실태」(2010) 등을 꼽을 수 있다.

### III. 맺음말

이 글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제주사회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회학 및 인류학 전공자들의 연구성과물을 내용 분석이나 평가를 가함이 없이 주로 연구 제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미흡하나마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제주사회 연구의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사회는 사회학 및 인류학 전공자만의 연구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사회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도 내의 다른 학문 연구자들, 그리고 다른 지역 사회학자들과의 폭넓은 교류와 토론이 필요하다(신행철 외, 1998: 3). 간혹 여러 학문 전공자들(정치학, 역사학, 법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등)이 공동으로 연구한 글들이 있기는 하나, 그 수는 소수에 그치고 있어서 공통의 사회현상과 문제에 대해 여러 학문의 전공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하고 연구하는 작업들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제주사회에 있어 다른 지역 사회학자들 간의 교류와 공동 연구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제주사회와 유사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사회의 사회학자들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작업을 통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서 제주사회의 문제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밝혀내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제주사회 연구는 단지 이론적·학문적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제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제주사회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과 쟁점 사항들을 따져보고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활동들이 필요하다(신행철, 2004: 533).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 제주사회의 쟁점이 되어 왔거나 현재까지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 이주민, 다문화, 고령화 및 노인복지문제를 다루는 논문들은 현실과 유관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인정한다면 제주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저출산, 청년실업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 다양한 전공자들에 의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연구되어 온 제주사회의 고유한 연구 주제 또는 문제는 지역개발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에도 지역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 사회갈등 문제, 인구문제, 교통문제, 주택문제, 제2공항 건설문제 등이 제주사회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개발이 제주사회에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미래를 설계하여 제시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필자의 노력 부족과 미숙함으로 인해 이 글에서 소개하지 못한 제주사회 연구 성과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글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했거나 모자라는 점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 참고문헌

- 강세현, 2014(2017), 『지역사회복지실천현장의 이론과 사례』, 공동체.
- 김석준·김준표, 2016, 『도박사회학: 제주지역 도박 산업화 과정과 성격』,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김진영, 2006, 『제주사회와 복지』, 제주대학교출판부
- 김창민, 1995, 『환금작물과 제주농민문화』, 집문당.
- 신행철, 1989, 『제주 농촌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일지사.
- 신행철, 2004, 『제주사회와 제주인』, 제주대학교출판부.
- 신행철 외, 1995, 『제주사회론』, 한울.
- 신행철 외, 1998, 『제주사회론2』, 한울.
- 이광규, 1984, 「사회학적 측면」, 제2회 탐라문화학술회의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 『탐라문화』 제3호, 61-76.
- 이창기, 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출판부.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1982, 『제대사회학』 제1집.
- 제주도지편찬위원회 편, 1998, 『제주의 민속 V: 민간신앙·사회구조』, 제주도.
- 제주도지편찬위원회 편, 2006, 『제주도지 제5권: 사회·교육·여성』, 제주도.
- 최재석, 1979,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 한상복, 1984, 「제주도종합학술조사(1959) 개요」, 『제주도연구』 1, 293-322.